

現代와 哲學的 精神 (完)

金午星

哲學的 精神은 어디까지나 更新하는 精神이다. 不斷히 否定하며 同時에 不斷히 創造하며 再建하는 精神이다. 構成화된 價値體系를 힘차게 否定할 수 있는 哲學的 精神만이 巨大한 새로운 價値를 生産하며 創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哲學的 精神은 『實驗의 結果』로서 나타나는 온갖 對象은 그 根源에서 다시 吟味함으로서 그것의 歷史的 端初的인 本質과 아울러 未來에의 可能的인 事態를 究明하게 되는 것이다. 哲學이 對象에 滿足치 안코 本質을 探求하는 것은 本質에 依하여 對象을 再建하여 새로이 創造하는 것도 되는 것이다. 그러다고 하면 混沌의 渦中에 있는 今日의 事實은 單히 實證이나 分析에 依해는 處理할 수 업고 오직 그것을 基礎的으로 超越해 가지고 事實의 根源에 들어가 歷史的인 端初로부터 本質的 原理的인 것을 探求함으로서 事實의 本質 뿐만아니라 나아가서 未來의 新事態에의 可能性까지 究明할 수 있는 것이다.

哲學的 精神은 單純히 根源的인 것, 本質的, 原理的인 것을 探求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事物의 聯關性 즉 部分과 部分 또는 部分과 全體와의 聯關性을 探求하는 精神인 것이다. 科學, 特히 近代의 『自然科學』에 잇서는 部分과 部分은 서로 모나도[모나드]的 原理를 가진 個別的인 것이다. 여기서는 한 部分과 다른 한 部分이 原理的으로 統一될 길이 주어져 있지 못했었다. 더욱이 部分과 全體와는 항상 聯關性을 喪失한 것으로 주어져 잇었다. 哲學的 精神은 이러한 部分과 部分의 對立, 部分과 全體와의 對立을 原理的으로 統一하는 것을 自己의 課題로 하고도 잇는 것이다. 그러나 哲學에 잇서서의 原理的 統一은 宗教的 精神에 잇서서와 가치 部分은 한 가지로 全體의 被造物, 乃至 所生産物이라 하여 온갖 部分을 全體 속에 埋沒시키는 그러한 것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哲學은 部分과 部分 또는 部分과 全體와의 聯關性을 찾기 위하여는 먼저 一定한 論理的 事實을 發見하지 안하면 안된다. 그리하여

論理는 種과 種, 種과 類와의 關係를 各自에게 그 『存立의 權利』를 주면서도 그것을 對立者의 統一로서 原理的 聯關性을 獲得하는 것이다. 部分과 部分이 서로 自己를 侵害받지 안코서 對立者로서 統一되며 部分이 自體의 獨自性을 維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哲學的 精神에 依해서 뿐인 것이다.

우리는 지금 部分과 部分 또는 部分과 全體와의 『聯關問題』에 잇서 가장 큰 難關을 體驗하고 있다. 個人과 個人 또는 個人과 社會의 聯關性 問題 또는 民族과 民族, 民族과 人類와의 聯關性 問題, 이러한 것들이 그 解決의 時念을 要하고 있다. 이 問題가 完全히 解決되는 날 『事實의 世紀』는 終熄되고 秩序의 世紀가 始作될 것이다. 그런데 이 問題는 單히 어떤 理論的인 解決에 매워진 것이 아니요, 重大한 實踐問題이겠스나 그러나 理論 업는 實踐을 생각할 수 업는 意味에서 먼저 그것의 理論的인 解決이 時念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問題는 過去 數 만흔 哲學이 그 解決을 위해 精力을 消費해왔거니와 이제 우리는 後來의 形式論理나 公式辨證法과는 좀더 內實的이요 創造的인 論理가 發見되며 誕生됨에 依해서만 그 解決이 可能하다고 생각할 수 박게 업는 것이다. 이것은 오로지 今日의 哲學的 精神의 巨大한 飛躍을 要하는 所以이다.

그러나 哲學的 精神은 純聯關性을 찾는데 끈치지 안코 한거름 더 나아가 綜合하는 精神인 것이다. 聯關性이란 『事物의 關係』를 意味함이다. 허나 事物의 關係만을 解明한다고 새로운 事態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은 決코 아니다. 여기서 事物의 聯關關係를 解明해내인 哲學的 精神은 다시 거기서 一大 綜合을 試하지 안흐면 안된다. 綜合은 體系的인 要約의 일음이며 體系的 要約이란 世界秩序의 論理化를 일음이다. 世界秩序의 論理化! 이것을 우리는 世界觀이라 부르는 것이니 그러므로 哲學은 먼저 實證的, 分析的인 科學的 精神을 前提로 하고 그 對象을 超越하여 그 根源에 돌아가 本質的, 原理的인 것을 把握하므로써 그 對象의 歷史的 本質을 究明하며 다시 事物의 聯關性을 차저 그것을 土臺로 하여 한 개의 體系로서 綜合하므로써 自己를 世界觀에까지 高揚시키는 것이라 할 것이다.

世界觀은 이미 다른 論文(哲學의 世界觀的 基礎)에서도 말한 바와 가치 『哲學 以前』에 벌써 그 時代의 人間들의 日常的인 生活態度에서 지여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世界觀이란 극히 素朴한 것이며, 또 오늘과 가튼 混沌의 渦卷 속에서는 一時的이나마 그 形態가 稀微해지는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生活態度에서 지여지는 日常性化한 世界觀은 다시 哲學的 精神에 依하여 根源的으로 省察되며 鍊磨되며 淨化됨으로써 비로소 그들의 行爲의 論理가되며 實踐에의 通路가 되어지는 것이다. 世界觀이 世界秩序의 論

理化라면 오늘과 가튼 世界史的 轉換期에 잇서서는 世界觀의 確立은 그것이 한 개의 精神文化的인 意味에서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現實적으로도 한 개의 世界의 創造가 아닐 수 없다. 웨-그러나 하면 世界觀은 哲學的 精神의 體系化이며 오늘의 哲學的 精神은 오직 渦卷과 가튼 事實을 根源적으로 省察하며 그리하여 雜多한 現實에서 本質的인 聯關關係를 探求해가지고 새로운 體系에 依하여 綜合함으로써 한 개의 새로운 『世界의 秩序』를 論理的으로 獲得함으로써 비로써 自己를 世界觀에까지 高揚시킨 것임으로써이다. 哲學的 精神의 世界創造! 이것은 單純한 浪漫主義者의 白日夢만이 아닐 것을 歷史上의 온갖 轉換期가 確認해주고 잇는 것이다.

哲學의 對象은 언제나 混沌이다. 제아무리 科學的 精神이 確乎한 것이라 主張하는 對象도 哲學的 精神은 混沌으로밖에 보지 않는다. 그런데 그 哲學的 精神의 胸度는 그가 對象으로 하는 混沌의 濃厚에서 決定되는 것이라 하겠다. 科學은 그 對象의 確實性에 따라 그 結果가 巨大함과는 反對로 哲學은 그 對象의 混沌性에 따라 結果가 巨大할 것이다. 그런데 모든 것이 『實證과 分析의』 精神에 依해서 管理될 수 잇는 時代는 그實 安定의 時代이며 이러한 時代에 잇서서는 哲學의 對象인 混沌은 보잘 것 업시 獲得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생겨지는 哲學體系란 그저 實踐的, 分析的으로 獲得한 科學을 □□주는데 잇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과 가치 온갖 事實이 實踐的, 分析的 精神으로서는 도저히 處理할수업는 轉換期에 잇서서는 哲學의 對象으로서의 混沌은 극히 濃厚한 것이니 여기서 誕生되는 哲學體系는 巨大한 創造的 精神에 依해서 □□되어 잇는 것이다. 이런 意味에서 現代는 正히 創造의 時代며 哲學的 精神이 크게 飛躍하는 時代라 할 것이다.

사람들은 現代哲學의 貧困을 指摘하고 잇다. 한 사람의 『칸트』나 『헤-겔』이 나타나지 안함을 恨歎해 마지 안는다. 하나 그것은 哲學을 한갓 完成된 體系에서만 보는데서 오는 杞憂일 것이다. 그 보담도 現代에 싹트고 잇는 哲學的 精神을 살펴본다면 그것은 眞신 『칸트』와 『헤-겔』을 凌駕하고 잇다 할 것이다. 웨-그러나 하면 『칸트』 哲學이나 『헤-겔』 哲學은 한갓 自己時代의 理論的인 體系인 것이나, 『現代의 哲學』은 自己의 體系를 生産하며 創造하려는 精神에 依해서 特徵되어 잇슴으로써이다.

現代의 混亂은 오직 哲學的 精神에 依해서만 處理될 것이며 現代人은 오직 哲學的 精神을 한 개의 武器로서 獲得하는데에서만 온갖 疑怨과 巡□ 苦惱로부터 버서날 것이라. 哲學的 精神의 獲得! 이것은 單純히 哲學者란 特殊層에 限하여 要求되는 것이 아니오, 今日의 文化人 全體에 要求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